

20포인트 시리즈



바다사자 지음



저자의 말

2021학년도 저자의 말

신입 저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오르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따라와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 2021학년도에도 열심히하는 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작년에 느꼈던 여러 부족한 부분을 모두 개선하고,

제 모든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나은 교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마켓입니다. 독해력 증진에만 힘썬던 기존의 비문학 교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입니다. 짧은 배경지식에 기출만 나열한 간단한 형태이지만, 기마켓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한합니다.

1. 비문학 기출 지문을 활용한 독해력 증진
2. 제재별로 분류된 지문을 활용한 취약부분 배경지식 학습
3. 쉽게 접하지 못했던 수능 지문을 활용한 새로운 지문 독해 학습
4.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비문학 지문 백과사전

정형화된 활용 방법은 없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 교재는 문제가 없는, 비문학 지문만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포 방지를 위해 지문 제목은 지문 번호로 대체하였고, 지문의 마지막에 주제와 핵심 내용을 직접 쓰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키워드는 맨 앞 지문 목록에 넣었습니다.



서양철학	10 p
동양철학	29 p
논리학	35 p
평가원 지문으로 복습	43 p

지문번호	출처	키워드	페이지
서양철학			
1	2012. 09월	실용설	44 p
2	2018. 수능	목적설, 아리스토텔레스	46 p
3	2020. 06월	에피쿠로스	48 p
4	2013. 06월	헤로도토스의 역사	50 p
5	2008. 06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52 p
6	2004. 수능	욕구	54 p
7	2002. 수능	꿈의 진단	56 p
8	2014. 수능 B형	정신과 육체	58 p
9	1996. 수능	키케로의 철학	60 p
10	2005. 예비	러셀의 철학	62 p
11	1999. 수능	괴테의 진정한 인간성	64 p
12	2000. 수능	루소의 사상	66 p
13	2003. 예비	심파테시아	68 p
14	2005. 수능	동일성에 관하여	70 p
15	2007. 06월	도덕적 선택	72 p
16	2020. 06월	개체성	74 p
17	2017. 수능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그리고 콰인	76 p
18	2011. 09월	공리주의	78 p
19	2020. 수능	베이즈주의	80 p

동양철학

20	2015. 09월 B형	유교	82 p
21	2016. 06월 B형	장자의 호접몽	84 p
22	2014. 09월 B형	유교와 성리학	86 p
23	2013. 09월	공자의 삶	88 p
24	2010. 9월	천의 개념	90 p
25	2015. 수능 B형	신채호의 아와 비아	92 p
26	2019. 06월	동서양의 의학(인체관)	94 p
27	2018. 06월	유학의 이념	96 p
28	2014. 06월 A형	유학자들의 독서	98 p
29	2004. 06월	유학자와 정치	100 p
30	2001. 수능	소크라테스와 고자	102 p
31	2010. 수능	최한기와 지행론	104 p
32	2005. 06월	맹자	106 p

논리학

33	2018. 09월	LP논리	108 p
34	2016. 09월 B형	설명이론	110 p
35	2014. 09월 A형	세계관	112 p
36	2019. 수능	가능세계	114 p
37	2016. 수능 A형	귀납	116 p
38	2017. 06월	유비논증	118 p
39	2015. 06월 B형	정합성	120 p
40	2014. 06월 A형	본질주의	122 p
41	2008. 09월	총체주의	124 p
42	2009. 수능	인과관계	126 p
43	2012. 수능	비트겐슈타인	128 p
44	2013. 수능	귀납의 논리적 문제	130 p
45	2012. 06월	일치법	132 p

언어학

46	2013. 09월	단어의 형성	134 p
47	2012. 09월	중간언어	136 p
48	2010. 09월	비교언어학	138 p
49	2013. 06월	2인칭 대명사	140 p
50	2012. 06월	높임법	142 p
51	2011. 06월	한글 창제	144 p
52	2010. 06월	언어지리학	146 p
53	2008. 06월	소쉬르의 언어학	148 p
54	2004. 수능	언어 기호	150 p
55	2003. 수능	언어의 특징	152 p
56	2002. 수능	언어의 형성	154 p
57	1994. 수능 2차	언어의 표현력	156 p
58	1996. 수능	어원 연구	158 p
59	1997. 수능	주시경의 언어 연구	160 p
60	1998. 수능	언어의식	162 p
61	2005. 수능	문자발달	164 p
62	1999. 수능	한글의 변화	166 p
63	2000. 수능	의사소통	168 p
64	2003. 예비	국어 어휘의 변화	170 p
65	2004. 09월	표준어	172 p
66	2005. 09월	수사학	174 p
67	2005. 예비	한자를 이용한 표기	176 p
68	2006. 09월	언어표현	178 p
69	2007. 09월	주시경의 언어 연구	180 p
70	2008. 09월	말소리	182 p
71	2009. 06월	한글편지	184 p
72	2009. 09월	적절성이론	186 p
73	2006. 수능	괴테의 언어학	188 p
74	2007. 수능	언어의 유지	190 p
75	2008. 수능	음절	192 p
76	2009. 수능	문장부호	194 p
77	2010. 수능	변별적 자질	196 p
78	2011. 수능	비통사적합성어	198 p
79	2012. 수능	표음성	200 p

80	2013. 수능	파생어	202 p
81	2007. 06월	사전	204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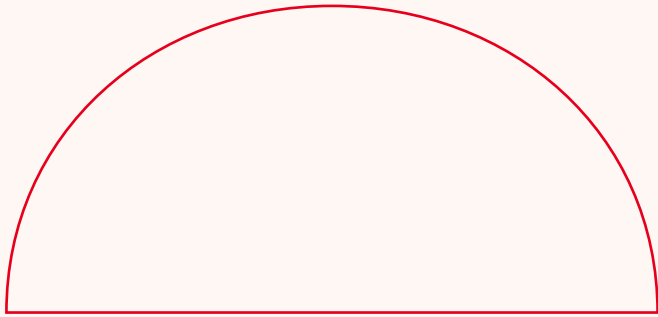
기타 인문

82	1994. 수능 2차	학문의 기쁨	206 p
83	2016. 06월 A형	정서주의	208 p
84	2007. 수능	인식론	210 p

2017 시리즈



기마켓



인문의 기본 내용들





서양철학

철학에 대해 다루기 전에 ‘인문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인문학은 매우 포괄적인 학문이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로, 인문학을 나누자면, 언어, 예술, 역사, 사상으로 나뉜다. 철학은 그 중 ‘사상’에 포함된다. 철학은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매우 멀게도 느껴지는 학문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는 철학을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발전되어 매우 오랫동안 발전된 학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대한 양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철학의 범위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모호하다. 본 교재에서 수능 국어의 인문 분야를 ‘철학’, ‘논리학’ 등으로 나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논리학도 철학의 일부 분야로 볼 수 있다. 수능 국어에서 ‘논리학’ 등 특정 분야를 다룬 지문의 문제와 보기의 특이한 형태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따로 떼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1 고대 철학-개요

고대 철학이 탄생한 곳은 그리스이다. 그리스에서는 거의 모든 학문이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문을 다뤘는데, 철학도 그 중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다른 철학은 질문의 형태로,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와 같은 질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화학이라는 하나의 큰 학문을 파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다. 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다른 학문을 파생시킨 뿌리와 같은 학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당시의 학자들을 구분할 때 ‘철학자, 화학자’나 ‘철학자, 수학자’ 이런식으로 다른 직업이 철학자 옆에 붙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학파’의 형태로 철학이 다루어졌다. 학파의 일원은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철학을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갔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동아리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각 학파는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했는데, 이러한 점이 맹목적 신뢰를 요구한 종교와 철학을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종교 역시 철학을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부분도 있고, 종교에 관한 학문인 종교학을 철학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철학에서 주로 다루지지는 않는다. 비교적 소규모였다는 것도 학파에 대한 하나의 특징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를 한번 떠올려 보자.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소크라테스 등 ‘스’자 돌림의 여러 학자가 떠오를 것이다. 흔히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라 함은 철학의 창시자인 탈레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를 일컫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치한 소크라테스를 기준으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와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자로 나누어 구분한다.

여담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역시 철학자의 구분에 넣을 수 있으며, ‘철학’과 ‘철학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이다. ‘시인’이 ‘철학자’에 포함됐던 것을 보면 당시 철학자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고대 철학-탈레스(기원전 7세기)

그러면 철학을 누가 시작했을까?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탈레스는 바닷가에서 살았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일화가 있다. 바로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일화이다. 만약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 “바람 때문에”,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등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나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포세이돈이 화나서”가 답변이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는 이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생각했었다. 현재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적어도 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있던 것이다.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에 걸맞게 여러 업적이 있다. 탈레스의 업적을 아래 나열하자면

- 천문학을 이용하여 일식을 예언. 이를 통해 천문과 신이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기하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크기를 구하였다. 토목공학에 정량을 도입한 것이다.
- 평가원의 옵션 지문에 나오는 올리브 흡착기에 관한 일화 역시 그 주인공이 탈레스이다.
- ‘수학적 증명’이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 기하학 정리를 증명하였다.
- 정전기를 관찰하였다.
-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후 4원소설로 이어지고, 4원소설은 연금술을, 연금술이 화학을 결정적으로 발전시켰다.

어찌 보면 탈레스가 한 업적이 그냥 다양하지만 자잘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업적 하나하나가 아니다. 탈레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그리스’보다 더욱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탈레스가 신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것이다.

#3 고대 철학-밀레토스 학파(기원전 7세기)

탈레스 역시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다.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에 걸맞게 그의 학파 역시 그리스 최초의 철학 학파이다. 기원전 6세기에 설립되었으며, '밀레토스'는 그리스의 해변 도시이다. 파도에 관한 그 일화가 있었던 도시이다. 밀레토스 학파의 유명한 학자는 3명이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이다. 모두 같은 고향이었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며 학문을 발전시켜나갔다. 밀레토스 학파에서 제시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자연철학에 관한 것으로, 만물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화학의 초창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학파의 창시자였던 탈레스는 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그 일원이었던 '아낙시메네스'는 다른 물질이라고 주장하였다. 탈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같은 물질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페이론'은 '에너지'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하지만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친숙하지 않았다. 이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견해는 우주론에 대한 것이다. '탈레스'는 땅이 물에 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가 바퀴모양이고, 땅은 안에 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낙시메네스'는 하늘은 하나의 덮개라고 하였고, 땅은 평평한 원판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학문은 때로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더 진실에 가까운 학설이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못한다면 배척되었다. (예를 들면 고대에도 지동설이 주장되었지만 당시에는 땅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천동설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4 고대 철학-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능 국어를 많이 공부했다면 피타고라스의 음계도 접해보았을 것이다. 탈레스가 경제와 화학 등의 학문을 파생시켰다면, 피타고라스는 미학과 수학을 파생시킨 철학자이다. 또한, 종교의 교주로 활동하기도 하며, 그의 학파인 피타고라스 학파는 종교 추종자와 비슷한 형태를 띠기도 했다.

피타고라스는 미술, 음악을 수학을 이용해 철학적으로 접근하였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원리가 '수'라고 믿었는데,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당시 그리스에서의 '수'는 무리수를 제외한 '유리수'까지를 포함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발견된 이후,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리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리수는 당시 그리스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조용히 넘어가고자 피타고라스는 무리수 사용을 주장한 그의 제자를 숙청하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종교적 색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수에 대한 애착은 음악으로도 이어졌는데, 이는 정수비를 나타내야 한다는 화음에 잘 드러나 있다.

이후, 이데아론과 비슷하게, 피타고라스 역시 완전한 직선을 그릴 수 없다는 논리를 이용해 신비주의적인 종교를 만들기도 했다. 그 종교 교리는 철로 물을 젖지 말라는 등 다소 특이한 경향이 있었으며, 그 바탕에는 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기하적으로 완벽한 도형을 그릴 수는 없으나, 숫자로는 각각의 숫자가 완벽(여러 법칙을 완전히 만족함)하다는 논리를 이용해 수를 숭배했으며, 피타고라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피타고라스 학파를 만들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주제

정리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정리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정리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주제

정리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정리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정리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주제

정리